

나와 우리말과 글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1

유치원 때 어머니를 따라 미술 학원에 다니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고 우쭐하여 장래 희망을 화가로 삼기도 했지만 성적이 좋은 편이라 선뜻 미술 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본격적으로 고민했는데, 화가 이신 외삼촌에게서 ‘미학’이라는 공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바로 나를 위한 학과라는 생각에 일단 학업을 열심히 하기로 하여 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했지만 예술론, 철학 등을 배우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그에 대해 배우면서 연구하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나중에 창작 활동을 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 대학 생활을 즐겁게 했고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유학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유학을 포기하고 장래에 대하여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행정 고시를 봐서 문화 행정, 예술 행정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주변의 권유에 따라 사법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시험 합격 후 사법 연수원에서 법 공부를 하게 되었다. 수료 후 판사를 지망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판사로 일하고 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말과 글, 언어와 논리란 것은 불완전하여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내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술로 향하는 중간 고리로 미학을 선택하였으나, 미학과에 입학하여 배우게 된 것은 그 대상을 예술로 삼고 있으나 결국 언어와 논리로 이루어진 새로운 체계였다.

그리고 그 고유의 논리를 배우는 동안 실제 예술의 세계, 창작의 세계는 오히려 전보다 더 멀어져 버렸다. 아마도 내게 그만큼의 열정과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미학에 사용된 언어와 논리는 대부분 유럽, 미국, 중국에서 온 것이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치밀하고 정교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도 같았다.

미학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한 법학은 그와 정반대였다. 당시 나에게 법이란 물질과 권력에 관한, 사람들과 계층들 간 욕망과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이었다(최근에야 ‘법미학’이란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법전에 담긴 글은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속 글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었고 음악, 미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경멸했던 세속적인 인간 세계 자체가 법의 대상이었다.

‘미학’이라는 정답이 없는 공부를 하다가 ‘법학’이라는 정답이 있는 공부

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법조문, 법 이론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답을 도출해 내는 공부의 가끔씩은 재밌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나의 종전의 생각들이 무척 편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법의 최고 가치라고 일컬어지는 자유, 평등, 정의를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 속에서 판결을 통하여 구현해 내는 것은, 과거 예술가들이 미(美)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현실의 인간 세계의 물질들을 통하여 구현해 내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다만 나의 우둔한 머리와 미천한 지식 때문에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지…….

3

말과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태어난 것이리라. 판사의 말과 글도 소송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과의 소통의 도구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소통이 실패하거나 거부당할 때, 쌍방 간 분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때 일방적이고 강제력을 갖는 말과 글이 판사의 입과 손을 통하여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이 판결이다.

재판을 통하여 일방 당사자는 판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말과 글을 형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판사에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다. 그것이 소송의 본질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판사는 두 당사자의 싸움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싸움의 강도는 다양하다. 물론 그 싸움터에는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칼부림이나 주먹다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법정에서 오가는 말과 글은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법정에 출석하는 일반인들도 보통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예의 바르게, 정중하고 점잖은 말투로 말을 하고 글을 제출하지만 그 말과 글 속에는 때로는 노골적인 욕설과 비방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라도 상대를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가득하기 마련이다.

“피고 ○○○는……. 모욕적인 폭언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일삼았고……. 원고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명예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정신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어떤 해고 무효 사건에서 한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습적으로 동료, 부하 및 상급자를 가리지 않고 폭언, 폭행을 일삼는 등 폭력적인 습벽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직속상관인 ○○ 전무에게 폭언, 협박을 한 점, 상습적으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불량한 근무 태도를 보인 점, ○○○○년도에도 업무 지시 거부 및 근무 태만 등으로 해고까지 고려되었으나 선처를 받아 정직 ○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서도 또다시 유사한 비위 행위를 되풀이한 점, 그 밖에도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점, 허위 사실을 대외 기관에 유포한 점, 피고의 정당한 인사 평가를 비방한 점 등 비위 행위를 한 점…….”(같은 사건에서 한 피고의 주장)

이런 말과 글은 인간 간의 소통, 협력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향해 겨누는 비수와 같다. 때로는 그 칼날이 상대방이 아니라 판사를 향하기도 한다.

“(원고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제 절차를 기대할 수가 없어 자력 구제로서 패악(悖惡)을 할 것이며, 이 책임은 이 법원에 있습니다.”

“재판장 ○○○는 피고의 대표 이사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 같은 향후회 회원 관계, 평소에 절친한 사이, 상당한 금융 거래 관계가 있으며, 같은 친목회의 회원이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신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원시적, 구조적으로 부존재합니다.”

“피고들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기

대할 수 없고, 곧 피의자 신분이 될 재판부가 계속하여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이에 형사 고소 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말과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싸우다 보면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부정의가 승리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세상은 지옥과도 같은 곳일 것이다. 게다가 언론에 나오는 판사에 관한 기사까지 보면 더욱 그러하리라.

4

판사의 주된 업무는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고, 양자를 소통시키고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국 마지막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판결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오랜 기간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세상이 지옥과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년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판사 역시 인간과 세계를 그와 같이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즉 인간의 말과 글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말과 글을 진심으로 믿어 주지 않는 판사가 야속하게만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통과 이해보다 오히려 오해와 불신,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커 갈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른바 막말도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남을 느낄 때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생각난다. 적어도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최대한 아낀다면 말로 인한 오해와

상처는 덜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국민이 판사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좋겠지만, 설령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해 주고, 자신의 주장을 자상하게 잘 들어 주고 이해해 주고,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다.

5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판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사법 제도의 정비 등 사법부 차원의 거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박한 바람이 몇 가지 있다.

판사가 된 후 대학 때 은사이신 오병남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세상은 원래 탁한 연못과 같은 것이고 탁한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탁한 것만 고이면 썩게 되므로 그 속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 보내는 작은 웅달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제자인 내가 그런 작은 웅달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내 머릿속에 20여 년간 쌓인 탁한 말과 글을 정화해 줄 웅달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법서가 아닌 여러 수필, 소설, 시집을 손에서 떼지 않으려고 애를 써 왔다.

내 머리, 마음속이 무채색의 의심으로 가득한 말과 글로 채워져 있다면, 당사자들이 진심을 담아 내게 전달하는 말과 글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회색빛 색안경을 통해 의심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서이다. 증오와 비난, 탐욕으로 물든 말과 글을 비워 내고 아름다움,

감동과 진실, 공감의 말과 글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채울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말과 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고, 약간의 운이 더해진다면 그 속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모든 직장인들의 바람이겠지만, 업무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동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리면서 길가에 핀 민들레꽃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걷거나, 적어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발 자신의 말을 두 시간만 들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 관계상 도저히 받아들일 형편이 되지 않아 내가 속한 재판부는 3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과연 두 시간 동안 할 말이 있을지, 재판부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인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고,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두 시간 발언을 신청했다가 30분으로 시간이 제한된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는 원인이 재판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당사자의 말과 글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듣고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 쌓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사람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충분히 의사가 소통되는 말과 글을 사용했으면 한다.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 바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의 바람이다.

최근 조정이 된 사건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이 잘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생긴 분쟁이었다. 원고는 이를 ‘피고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생각해서, 반면 피고는 이를 ‘자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인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협력을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이 문구를 기재하였다. 만약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명확히 글로 기재해 두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분쟁이었다.

이 밖에도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화를 하였으면 생기지 않았을 분쟁들도 무척 많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로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 송사를 피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일반의 말과 글은 더욱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분쟁이 적은 사회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새 국어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